

법원이 부역한 역사 왜곡 대중이 바로잡는 중



법으로 세상읽기

이동호 변호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 소식이 들려온다.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그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발굴해 수록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한국전쟁 종전 1년 만인 1954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엄청난 환대를 받는 현장을 담은 영상이다. 뉴욕 맨해튼에서 카퍼레이드를 할 때 현지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고층 빌딩에서 꽃송이가 마구 날렸다. 방금 전쟁을 치른 약소국 대통령을 미국 시민이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이 놀랍다.

또 하나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27일 이승만 대통령이 행한 라디오 방송 내용이다. 이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은 피난을 가면서 서울 시민에게는 서울에 남아 있으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이승만은 "지금 우리의 원수들은 사방에서 중무장한 비행기와 탱크 그

리고 군함을 몰고 와서 우리를 옥죄고 있다"고 실상을 그대로 전했다.

4·19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울먹이며 위로하는 장면, 하야 후 출국할 때 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던 장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야반도주하듯 하와이로 망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은 이 대통령에게 그다지 원망이나 원한을 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영화를 두고 비판도 있다. 철 지난 이념 전쟁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랜 시간 왜곡된 언론보도나 출판물·영상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이 이 영화를 찾는 이유도 진실을 알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필자는 왜곡 사례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민방송(RTV)이라는 매체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이승만박정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2013년에 방송한 적이 있다. '백년전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승만 편 조희수는 무려 260만 회가 넘는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객관성 및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방송 규정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진실을 왜곡한 대표적 영상물인 '백년전쟁1-두 얼굴의 이승만' (왼쪽)과 '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프레저 보고서' (오른쪽). 민족문제연구소 캡처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했다. 그러나 방송국이 제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2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대법원에서 벌어졌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재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해 버린 것이다. 다큐멘터리가 공정성과 객관성·균형성을 잃어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원래는 6대 6으로 동수였다. 그런데 캐스팅 보트를 친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당하다는 쪽에 가세해 원심 판결이 파기된 것이었다.

소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대법관들(김선수·김명수·박정화·민유숙·이동원·노정하·김상환)이 포진했던 다수의견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할 때 방송매체·채널·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것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신뢰도에 대한 기대도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시민단체가 만든 프로그램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검증

목적으로 역사적 사료를 대상으로 하거나 하면 진실을 왜곡하더라도 다양한 여론 형성 차원에서 이를 제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견은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진실

을 왜곡하거나 객관성·균형성·공정성을 잃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진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면서 '백년전쟁'에 면죄부를 주었다. 현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관도 포함되었던 소수의견 측에서는 이를 매섭게 비판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이라는 논리는 실제도 없고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콘텐츠라도 점유율이 낮은 유선방송에서 방송하느냐 아니면 KBS 같은 지상파가 방송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 이는 법치행정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조인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논리이다.

또한 소수의견은 '백년전쟁'의 사실 왜곡을 사례를 들어 밝히기도 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이 젊은 여성과 바람을 피워서 미국 수사관이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어로 보아 그를 '기소'했다고 방영했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 따르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무혐의 사실을 안 밝히고 기소됐다고만 방송하면 사람들은 유죄

로 믿기 마련이다.

백년전쟁은 "이승만은 권력욕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고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기재된 미국 CIA 문서를 인용하면서 '이승만은 출세욕에 모르는 사이비 독립운동가'라는 내레이션을 삽입했다. 그러나 소수의견 측은 원문 전체를 인용했다. 그에 따르면 "이승만이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문서 작성자의 개인 의견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두고 CIA가 오로지 이승만을 사이비 독립운동가로 폄하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는 것이다.

짧은 지면에서 '백년전쟁'의 사실 왜곡 부분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다. 반면에 대법원이 여론의 다양성이란 미명하에 '백년전쟁'에 면죄부를 준 결과, 내레이션과 자막까지 동원해 이승만을 '하와이 갱스타'인족반역자-플레이보이-돌대거리'로 매도한 프로그램이 아직도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이 역사 왜곡에 내놓고 판을 깔아 준 셈이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대중은 선동되기 쉽기도 하지만 결코 어리석지는 않은 것 같다. '건국전쟁' 신드롬을 통해 대중은 무엇이 공정한지,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리버풀 전성기 이끈 클럽 감독 "떠나겠다" 폭탄선언



스포츠 세상

박병현 디지털뉴스국장

세계 최대의 축구 시장인 '축구 중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가장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클럽은 리버풀 FC다.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아니며 손흥민이 활약 중인 토트넘 홋스퍼도 아니다.

1892년에 창단된 리버풀은 리그 우승 18회·FA컵 우승 7회·리그컵 우승 8회의 금자탑을 쌓았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에서도 6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EPL의 '명가' 리버풀은 2004~05시즌 '이스탄불의 기적' 끝에 유럽 클럽축구 정상에 올랐지만 이후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했다. 옛 명성을 재현하기 위해 라파엘 베니테스(스페인)·로이 호지슨과 케니 달글리시·브랜던 로저스(이상 잉글랜드)가 차례로 지휘봉을 잡았지만 EPL 빅

4의 위용을 살리지 못했다. '붉은 제국'이라 불리던 전성기는 이미 사라져 은둔간 데였었다.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를 명가로 키워 낸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롭에게 리버풀을 맡긴 것은 마지막 희망이며 신의 한수였다. 리버풀은 화려한 역사를 뒤로 한 채 국내외 팬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팀 컬러나 전술적 특징도 전무했으며 이름 좀 날린다는 선수들은 입단하기를 꺼렸던 지지부진지리멸렬 그 자체의 상태였다.

193cm의 장신인 클롭은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속한 FSV 마인츠 05에서 11년간 선수 생활을 했다. 처음에는 스트라이커였다가 28살 때 수비수로 전향했다. 비록 화려한 공격수는 아니었지만 나름 밍글은 했다. 수비수로 전향한 후에도 종종 원더골을 터뜨린 것은 공격수 출신이기에 가능했다. 리그 325경기에 출전해 52골을 기록한 걸 보면 완전 벤치멤버는 아니었다.

2000~01시즌 성적 부진으로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되자 마인츠 05 구단으로부터 선수 겸 감독을 맡아 달라는 모험을 제안 받은 클롭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선수 생활을 아예 은퇴했다. 일찌감치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다.

선수로 뛰어도 이상할 게 없는 34살에 감독 커리어가 시작했다. 3부 리그 강등 당할 위기에 처했던 마인츠를 가까스로 구한 클롭은 2003~04시즌 세 번의 도전 끝에 마인츠 창단 99년 만에 첫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했다. 마인츠에 선수로 11년·감독으로 7년, 무려 18년을 몸담았던 클롭은 도르트문트의 러브콜을 받은 뒤 구단의 어려운 재정애 맞춰 가성비 좋은 알짜배기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선수 영입 스타일이 일명 '클롭식 알짜 영입'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다.

미드필더 카카와 신지(일본)를 50만 유로(약 7억2000만 원)에 영입한 데 이어 독일 대표 선수로 성장한 마리오 괴체, 폴란드 불리모는 게 이 무렵이다. 이들은 이적 첫 해부터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고, 도르트문트는 결국 꿈에 그리던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분데스리가 2연패를 이루고 독일 프로축

구의 상징인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포탈컵을 차지한 클롭의 다음 행선지는 영국 땅이었다. 도르트문트를 완벽하게 부활시킨 화려한 경력 때문에 리버풀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 줄 구세주로 평가받은 것이었다. 그 기대감은 여파만 듯이 적중했고, 리더십은 세 시즌만에 실현됐다. 클롭은 리버풀에서 2021~22 EPL 득점왕 출신인 모하메드 살라흐(이집트)·호베르트 피르미누(브라질)·사디오 마네(세네갈) 등 공격라인을 위시해 유럽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버질 반 다이크(네덜란드) 등 스타들을 키워 냈다.

2011~12시즌 리그컵 우승이 마지막이었던 리버풀은 지금까지 못한 무관 기록을 끊어 냈고 동시에 무려 14년 만에 UCL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이후 리버풀은 유럽 무대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호로 변모했으며, 무려 30년 만에 2019~20 EPL 정상을 차지했다. 2021~22시즌엔 EPL 2위에서 FA컵과 EFL 2관왕에 올랐다. 올 시즌에도 선두에 오를 정도로 파죽지세다. '신의 한수'로 모셔 온 클롭 감독의 지도력 덕분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손뼉을 치며 그라운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클롭은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 기간을 앞당겨 리버풀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9년간 리버풀의 '왕조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인지 번아웃(에너지 고갈)되어 재충전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천하의 클롭도 스트레스를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리버풀을 떠나겠다는 선언은 리버

풀 팬뿐만 아니라 다른 팀 서포터즈에게도 충격이었지만 팬들은 그의 의견을 절대 존중한다. 늘 겸손하고 정직한 지도자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클롭은 EPL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첼시 등 명문 클럽의 지휘봉을 모두 잡았던 '스페셜 원' 조제 무리뉴와 달리 자신은 '노멀 원(평범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리버풀에 남긴 족적은 전혀 노멀하지 않고 스페셜하다.

클롭은 24년의 지도자 경력 기간 동안 많은 팀은 단 3번에 불과하다. 모두 최소 7년 이상 장기 지도하며 열정을 쏟아부었고, 물러날 때도 경질된 적 없이 본인의 의지로 사임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클롭이 감독직을 은퇴하는 것은 아니다. 리버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훗날 잉글랜드를 제외한 다른 리그 국가대표팀을 맡아 축구계로 복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가족을 희생시키며 리버풀을 위해 충성을 다한 클롭 감독, 떠나도 좋다. 트레이드 마크인 어퍼컷 세리머니를 못 보게 되어 아쉽다. 정직한 지도자의 행운을 기원한다.

맛있는 우리말 200

스카이데일리 연재

다양한 예문과 함께 떠나는 우리말 맛집 탐방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풍미를 더하는 맛있는 우리말 모음집

I. 달콤한 우리말	II. 얼큰한 우리말	III. 새콤한 우리말	IV. 씹살한 우리말
V. 칼칼한 우리말	VI. 매콤한 사자성어	VII. 개운한 우리말	VIII. 씹쓸한 들은말

우리말에 담긴 헛갈리는 표현, 동음이의어, 띄어쓰기의 함정, 사자성어, 꼭 알아야 할 맞춤법 등 다양한 우리말을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총 8장으로 구분하였다. 한 페이지에 500자 내외의 글로 담아 어느 쪽을 펼쳐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저자 박재역 | 글로벌콘텐츠

박재역의

맛있는 우리말 200

다양한 예문과 함께 떠나는 우리말 맛집 탐방

박재역 지음

글로벌콘텐츠